

2025년 1월 9일 대구 2025-1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디지털 노마드 확산배경과 대구지역경제에의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이진기
Tel. (053)429-0253 Fax. (053)429-0219 E-mail. daegu@bok.or.kr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대구경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디지털 노마드 확산배경과 대구지역경제에의 시사점

2025. 1.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작성자>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이진기 과장

<조언자> 강기우 팀장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요약>	
I. 검토배경	1
II. 디지털 노마드 특성 및 확산 배경	2
1. 디지털 노마드 특성	
2. 디지털 노마드 확산 배경	
III. 디지털 노마드 유치 경쟁력	5
1. 우리나라 및 대구지역 유치 경쟁력 평가	
2. 국외 사례 분석 : 일본 후쿠오카 디지털 노마드 시범사업	
IV.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13
V. 디지털 노마드 유치 전략 및 시사점	16
1. 디지털 노마드 유치 전략	
2. 시사점	
참고 1 입지계수 기준 대구지역 특화산업	19
참고 2 세계 각국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요건	20
참고 3 대구지역의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생산 및 취업유발계수	21
참고 4 일본 빈집 은행 및 활용사례 소개	22
<참고문헌>	23

요약

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 유치는 소비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을 합성한 신조어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공간제약 없이 재택·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대구는 GRDP내 민간소비 비중이 17개 광역 시도 중 최고 수준이나, 역내유입 소비율이 역외유출 소비율에 비해 낮아 소비순유출이 나타난다.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늘어난다면 대구 지역 소비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디지털 노마드는 기술 관련 직업군에 속하는 젊은층(MZ세대) 중심이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인프라, 디지털 노동환경, 새로운 관광 인프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2. (디지털 노마드 특성 및 확산배경) 전세계 디지털 노마드는 IT 인력 중심의 젊은층이고, 다수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격근무 확산,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원격근무가 확산된 가운데, 현재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여가시간과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MZ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디지털 노마드를 확산시켰다. UNWTO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익의 감소도 디지털 노마드 확산요인 중 하나로 설명한다.
- 전세계 디지털 노마드의 40%는 정규직이고, 99%는 젊은층(MZ세대)이며, 27%는 웹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및 국적별로는 남성이 79%, 미국 국적이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디지털 노마드 유치 경쟁력) 세계 각지의 디지털 노마드는 국가 단위의 비자정책, 디지털 환경, 경제수준 등과 정주할 도시의 경쟁력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평가하므로 국가단위에서 도시단위까지 분석하는 Top-down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대구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광역지자체 단위의 유치 노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 Global Digital Nomad Report의 국가별 디지털 노마드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65개국 중에서 27위이다. 스페인이 디지털 노마드에 가장 우호적이었으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에 속한 국가들의 경쟁력도 높았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12위, 말레이시아 15위, 일본 16위 등의 순이다.

- Digital Nomad Index가 제시하는 5가지 지표로 우리나라의 유치 경쟁력을 평가해 보면 기술과 혁신(1위), 비자혜택(6위)은 강점으로, 비자비용(54위), 생활물가 등 경제(61위)는 약점으로 평가된다. 삶의질(21위)은 중간 수준이다.
- 일본 후쿠오카시는 2023년 10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노마드 유치 시범 사업을 한달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참가자의 88%는 프로그램에 만족하였으며 98%는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할만하다고 평가하는 등 시범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총 소비액은 약 2.2천만엔, 사업 전체 소비효과액은 약 3.3천만엔으로 각각 추산된다.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도시와 자연의 조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콤팩트한 도시환경, 음식에 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여건은 대구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와 유사하다. 다만 생활 속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것을 치명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가자들간, 참가자와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활동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는 점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디지털 노마드 1인 유치에 따른 대구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부가가치유발효과 2.7백만원, 생산유발효과 5.5백만원, 취업유발효과 0.06명으로 각각 추산된다. 대구지역 주민 1인의 지역 소비액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에 있어서도 디지털 노마드는 0.54명에 불과해 일반 외국인 관광객(1.63명)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노마드 유치는 대구 청년인구 유출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지원 강화 등의 과정에서 청년일자리가 늘 수 있으며 국내 디지털 노마드 유입도 촉진할 것이다.

5. (디지털 노마드 유치 전략) 디지털 노마드 유치 전략으로는 정부지원 등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 지역 특화형 비자기준 마련, 전문사업체와의 협업 강화, 원스톱 서비스 창구 개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노마드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대구지역으로 유치하는 디지털 노마드에게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비자 형태의 특화 비자를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인데, 지자체가 지역의 필요에 맞게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요건을 특화 설계하고, 비자 발급대상자를 중앙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전문사업체와의 협업, 코워킹·코리빙(Coworking, Coliving) 스페이스 확보, 커뮤니티 중심의 콘텐츠 개발이 디지털 노마드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는 한류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 대구가 일본의 후쿠오카와 같은 디지털 노마드 시범사업 도입을 고려하려면 생활 속 영어소통환경을 개선하고,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 AI 기술 발달로 의사소통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대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자연스러운 생활환경이 되도록 지자체 등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도시에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업무 뿐만 아니라 여가와 관광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시사점) 대구는 일본 후쿠오카와 같이 경제권역 내 소비거점도시이며 생활 인구 증가를 통한 고령화 대응, 국제공항 수요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와 국외 사례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미주, 유럽 등 국제노선이 추가되어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구는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임용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를 통한 교류 증대는 다양한 문화와 개방적인 사고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도시이미지를 탈피하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디지털 노마드 유치는 단기적으로 대구지역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구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추진이 성공하여 디지털 노마드의 장기체류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라는 과도기를 넘어 생활 주민 확충을 통해 지역소멸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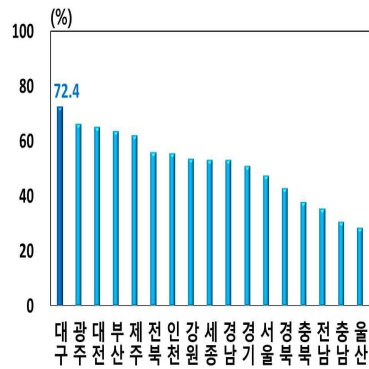
- 본고는 자료의 제약상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디지털 노마드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디지털 노마드 관련 통계가 확충된다면 디지털 노마드가 머문 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무임승차하는데서 오는 문제점과 디지털 노마드 유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부정적인 효과까지 고려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언과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I.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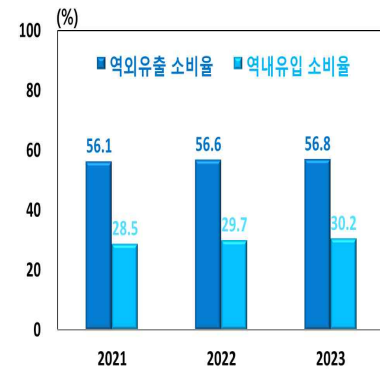
1.1.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을 합성한 신조어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공간제약 없이 재택·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도입되면 고소득 외국인¹⁾의 국내 체류가 늘어나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대구는 민간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상황이나 최근 3년간 소비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2.4%에 이르는 가운데 주력 제조업의 성장 미흡으로 민간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소비 유입과 유출을 신용카드 데이터로 파악해 보면 역내유입 소비율 대비 역외유출 소비율 수준이 높아 소비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대구 역내 유입 소비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²⁾은 13.2%로, 경북(48.7%)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보다 높다.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은 소비경로를 통해 대구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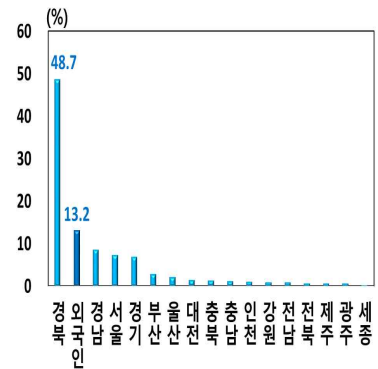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중 **민간소비 의존도가 가장 높음** **대구**는 소비순유출이 계속되는 **상황** **외국인**은 대구 유입 소비의 **13.2%**로 **경북** 다음으로 높은 수준
 [그림 1] GRDP내 민간소비 비중(2022년) [그림 2] 역외유출 및 역내유입 소비율 [그림 3] 역내유입 소비 중 지역별 비중



자료: 통계청



자료: 하나, 신한, 농협 3사 신용카드 데이터



- 1.4. 본고는 디지털 노마드 특성과 확산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대구시의 디지털 노마드 유치 경쟁력을 평가한다. 외국인관광객 데이터와 국외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노마드 유치 효과를 추산하고, 향후 유치 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디지털 노마드 특성 및 확산 배경

1. 디지털 노마드 특성

2.1. (디지털 노마드 특성) Global Digital Nomad Report가 2024년 중 디지털 노마드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정규직이 전체의 40%이고 계약직은 9%, 프리랜서는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MZ세대)가 전체의 99%를 차지하였고, 소득측면에서는 연간 5만달러 이상이 79%,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은 2%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UN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의 'Digital Nomad Visas'(2023.11월)에 따르면 디지털 노마드의 성별은 남성이 79%, 여성이 20%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52%, 영국이 8%, 러시아 5%, 캐나다 4%, 독일 및 프랑스가 각각 3%이다.

2.2. (대구 방문 외국인 관광객 특성) 대구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체류일수는 7일로 나타났다(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국적별 비중은 미국 16.0%, 대만 8.1%, 베트남 7.4%, 중국 6.4%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38.7%, 30대 29.1%, 50대 13.4%, 40대 13.1%, 60대 이상 3.3%, 10대 2.4%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최장 체류일수가 90일, 최소는 1일로 나타났고, 평균 7일 정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만 방문한 경우는 15.8%로 낮았다. 여행형태로는 개별여행이 81.9%, 단체여행이 17.2%이다. 디지털 노마드 중 다수(52%)가 미국 국적이고, 20~40대가 99%로 나타나, 대구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특성이 디지털 노마드 특성과 유사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2.3. (디지털 노마드 유치 경쟁력) Global Digital Nomad Report의 국가별 디지털 노마드 종합순위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65개국 중에서 27위이다. 동 순위에서 스페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에 속한 국가들의 순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12위, 말레이시아가 15위, 일본이 16위이다. 우리나라 디지털 노마드 유입 경쟁력 종합 순위는 27위이다. 세부항목별로 보는 기술과 혁신(1위), 비자혜택(6위) 등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반면 비자비용(54위), 생활물가 등 경제(61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았다. 삶의 질은 21위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

4) 12개의 핵심 지표를 5개로 분류하여 점수를 산출하였고, 5개 지수를 토대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종합순위를 매겼다. 5개 지수는 비자 비용, 비자 혜택, 삶의 질, 경제,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산출하였다.

으로 가까워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대만은 첨단 기술 인프라, 삶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여타 국가에 비해 비자 혜택의 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디지털 노마드 유입 경쟁력 국가별 순위

<5개 주요 지수를 종합한 종합점수 기준 순위>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몰타	포르투갈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독일	대만	체코	라트비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종합점수	89.12	86.26	86.20	85.77	84.89	84.48	84.07	83.65	83.61	83.17	81.86	81.84	81.83	81.21
	말레이시아	일본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에콰도르	호주	두바이	브라질	파나마	사이프러스	멕시코	아부다비	대한민국	콜롬비아
순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종합점수	81.00	80.40	80.04	79.18	79.11	78.85	78.84	78.60	78.52	78.50	78.33	78.25	78.11	77.95

자료: Global Digital Nomad Report(Global Intelligence Unit, 2024)

2.4. (비자 발급 요건) 법무부에서 2024년 1월 1일 도입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해외 기업에 소속된 만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이어야 한다. ② 연소득 8,496만원(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으로 최대 2년까지 국내에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서의 영리 및 취업활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2. 디지털 노마드 확산 배경

2.5. 국내에서 재택이나 원격 방식의 유연근무제는 2019년까지도 전체 유연근무제 중 7%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과 2021년 급증하였으며 2024년에는 15.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내 주요 21개 산업의 원격근무자 비율은 2019년 7%에서 2021년, 2022년 각각 20.1%, 17.3%까지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원격근무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22년 10월부터 원격 및 재택근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격 및 재택근무자의 비율은 2023년 19.7%, 2024년 2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원격근무의 확대가 그 배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5)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표 2] 국내 유연근무제 활용형태 응답결과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근로시간단축근무제	0.4	7.8	9.9	15.1	17.1	13.1	10.1	11.0	9.6	12.0
시차출퇴근제	42.0	38.1	38.4	33.2	33.7	31.2	29.9	31.7	33.0	35.0
선택적 근무시간제	33.2	31.6	31.9	32.3	30.4	26.4	23.1	24.8	26.5	25.4
재택 및 원격근무제	7.3	7.3	5.6	4.7	4.3	17.4	32.3	27.5	19.9	15.9
탄력적 근무제	26.3	23.7	26.0	27.3	32.0	29.1	27.4	27.9	31.2	29.5
기타(재량근무 등)	12.3	1.5	9.1	10.9	9.6	10.2	8.7	9.1	9.2	9.3

자료: 통계청

2.6. 원격근무의 확산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도 디지털 노마드 확산 요인이다.

디지털 노마드의 99%는 MZ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근무가 확산된 가운데, 여가시간과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치관이 디지털 노마드에도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국회미래연구원⁶⁾에 따르면 MZ세대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 현재의 행복을 미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과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한편 UNWTO의 ‘Digital Nomad Visas’(2023.11월)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확산이

코로나팬데믹에 따른 관광수익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해당 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관광수익 급감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이후 디지털 노마드 특별 비자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 디지털 노마드 수는 1,690만 명으로 2019년(730만명)에 비해 1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Global Digital Nomad Report에서는 2024년 기준 전세계 디지털 노마드 인구수는 약 3,500만명으로 2020년(약 1,090만명) 대비 3.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표 3] 미국의 디지털 노마드 현황

연도	디지털노마드 수	(백만명, %)
		증감률
2019	7.3	
2020	10.9	49
2021	15.5	42
2022	16.9	9

자료: UNWTO(2023)

6)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 세대별 비교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2024.7월)

Ⅲ. 디지털 노마드 유치 경쟁력

1. 우리나라 및 대구지역 유치 경쟁력 평가

3.1. 우리나라 유치 경쟁력은 Global Digital Nomad Report의 Digital Nomad Index를 기준으로, 대구지역 경쟁력은 외국인 관광객 방한 고려요인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세계 각지의 디지털 노마드는 국가 단위의 비자정책, 디지털 환경, 경제수준 등과 정주할 도시의 경쟁력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 평가하므로 국가단위에서 도시단위까지 분석하는 Top-down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대구의 경쟁력을 점검한다. Digital Nomad Index는 비자비용, 비자혜택, 삶의 질, 경제, 기술과 혁신이라는 5가지 지표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에 우호적인 환경을 국가단위에서 평가하고 있다.

[표 4] 디지털 노마드 인덱스 구성 요소

상위 지표	하위 지표
비자비용(Visa Costs)	비자 신청 비용(Application Costs)
	소득 요건(Income Requirements)
비자혜택(Visa Benefits)	비자 기간(Visa Duration)
	영주권 획득(Path to Citizenship)
	연장 가능성(Possibility Extens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기후, 안전, 의료, 오염(Climate, Security, Healthcare, Pollution)
	영어 숙련도(English Proficiency)
경제(Economics)	생활물가(Cost of living)
	세금 최적화(Tax Optimization)
	공유데스크 가격(Coworking Desk Price)
기술과 혁신(Tech and Innovation)	인터넷 속도(Internet Speed)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WI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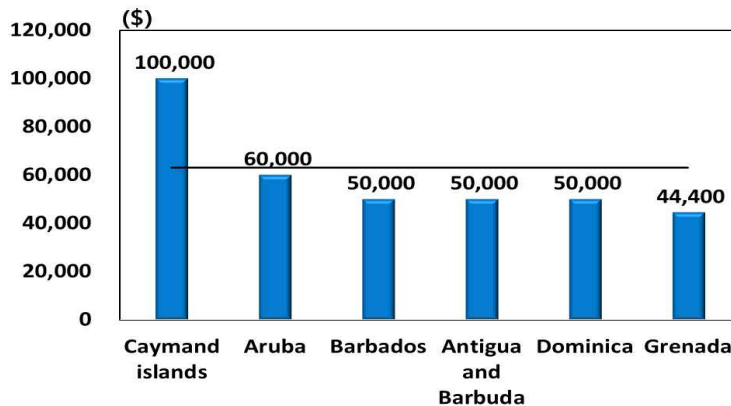
자료: Global Digital Nomad Report(Global Intelligence Unit, 2024)

3.2. (우리나라 유치 경쟁력) 비자혜택(6위), 기술과 혁신(1위)은 상대적인 강점요인으로, 비자비용(54위), 경제(61위)는 약점으로 평가된다. 삶의 질(21위)은 중간 수준이다. 비자혜택 지표는 비자기간, 영주권 획득, 연장 가능성의 하위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주권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여하지 않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참고2> 참조) 우리나라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1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UNWTO(2023)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6~12개월간 체류가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52개국 중 24개국이 12개월간, 15개국이 6개월간 각각 체류 가능하다. 기술과 혁신 지표는 인터넷 속도와 글로벌 혁신지수 2가지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World Population Review(2024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224개국 중 11번째로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혁신지수도 133개국 중 6번째로 높다.

3.3. 비자비용 지표는 비자 신청 비용과 소득요건 2가지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비자 신청 수수료가 40~90달러로 저렴하나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와 소득요건은 까다롭다. 비자 신청 비용은 비자 신청수수료, 제출 서류·양식, 비자 신청 요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법무부가 시범 운영중인 우리나라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⁷⁾ 첨부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제출 서류 외에도 발급 대상 요건을 외국기업에 소속된 자로, 1년이상 동일업종에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프리랜서⁸⁾는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체류기간 동안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 보험 가입도 필요하여, 수수료는 저렴하나 신청 절차는 어렵다. 소득요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⁹⁾이다.

카리브해 국가 소득요건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득요건 기준인 연간 63,000달러는 케이맨 제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4] 카리브해 국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연간 달러 기준)



주: 검은색 실선은 대한민국 소득요건인 63,000달러를 표시
 자료: Global Digital Nomad Report(Global Intelligence Unit, 2024)

3.4. 경제 지표는 생활물가, 세금최적화, 공유데스크 가격이라는 3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물가는 199개 도시 중 54위로 나타났고, 세금 최적화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방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등 양호하다. 공유데스크 가격은 100개국 중 22위다. Global Digital Nomad Report는 Numbeo 기준¹⁰⁾으로 생활물가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서울의 생활물가는 199개 도시중 54위로 비교 도시들에 비해 생활물가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OECD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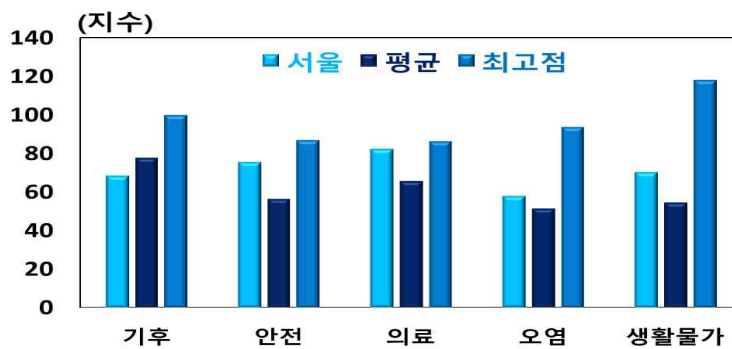
7)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8) 우리나라가 프리랜서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많은 국가에서는 프리랜서도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세계법제정보센터)
 9) 우리나라의 소득요건인 8,496만원은 약 6만3천달러로 환산되고, 이는 월 5,250달러 수준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세계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 규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연 2만4천달러 이상, 튀르키예는 연 3만6천달러 이상, 인도네시아는 연 6만달러 이상, 일본은 1,000만엔(약 6만6천달러)이상의 소득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브라질은 월 1,500달러 이상의 수입과 1만8천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10) Numbeo는 전세계 다양한 국가와 도시의 생활비, 헬스케어, 범죄, 공해 등 생활조건(living condition)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누구든지 작성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통계이다. 해당 지표에 대해서는 OECD 통계 등 다른 기관의 통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2022년 Price level Indices’를 기준으로 보면 생활물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물가수준은 36개국 중 22번째로 나타나 서울의 생활물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UNWTO의 ‘Digital Nomad Visas’(2023.11월)에서 각국의 세금 규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류기간이 183일이 지나면 체류국에서 거주자가 되어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거주자가 되어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¹¹⁾한다. 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22 HOT DESK¹²⁾ PRICE INDEX’(Coworking Insight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100개국 중 22위로 공유데스크에 대한 가격 수준이 높은 편이다.

3.5. 삶의 질 지표는 21위로 54위인 비자비용과 61위인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삶의 질 지표는 영어숙련도와 기후·안전·의료·오염이라는 2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숙련도는 EF(Education First)의 EPI(English Proficiency Index)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EF EPI에서는 113개국의 영어 스킬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13개국 중 49위로 영어숙련도가 보통 수준(Moderate Proficiency)이다. Global Digital Nomad Report는 Numbeo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후·안전·의료·오염 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서울 기준)는 의료·안전은 유리한 여건으로, 기후·오염은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기후를 제외한 안전, 의료, 오염 및 생활물가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삶의 질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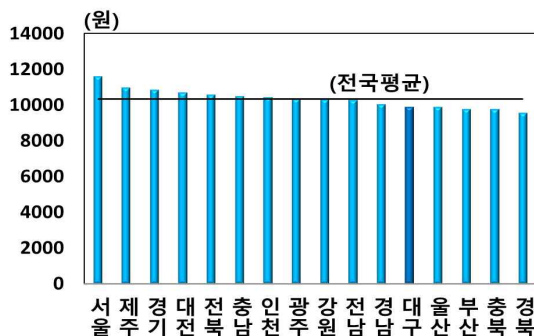
주: 1) 서울 기준
2) 생활물가는 종합점수 기준
자료: Quality of life index(Numbeo, 2024)

- 11) 법무부에 따르면 단기 거주 외국인(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거주자가 된 디지털 노마드의 경우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2) ‘Hot desk price’는 공유오피스 등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핫 데스크(hot desk)’를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핫 데스크는 예약 없이 공용 좌석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말하며, 고정된 자리가 아닌 누구든 빈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는 방식이다. 핫 데스크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나 월 단위로 책정되며, 개인이 특정 좌석을 임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기 때문에 고정석이나 사무실 임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3.6.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안전·의료 측면은 양호한 여건으로, 오염·기후 측면은 개선필요 여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지표의 경우 OECD의 1인당 의사 진료 횟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7로 비교국가 32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안전 또한 살인율 및 밤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함 지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지표의 경우 공기 질이 41개국 중 40위, 수질이 41개국 중 24위로 나타났고, 기후¹³⁾는 비교도시 181개 도시 중 서울이 114위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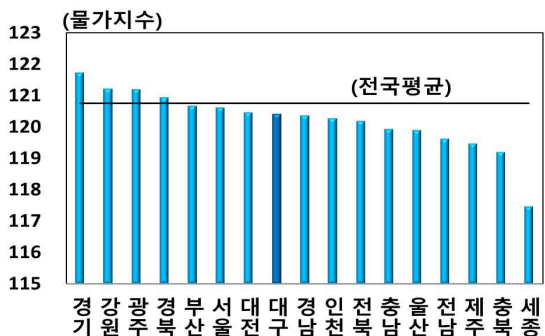
3.7. (대구지역 유치 경쟁력)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시 고려하는 요인은 음식·미식탐방(36.6%), 쇼핑(16.5%), 역사·문화 유적·전통문화 체험(10.1%), 자연풍경 감상(8.9%)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노마드 또한 체류기간이 보통의 관광객들보다 장기라는 점을 제외하면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관광을 즐길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관광객 방한 고려요인을 중심으로 대구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대구는 서비스업 특화도시로, 음식점·숙박, 도소매·상품중개에 특화되어 음식·미식탐방과 쇼핑에 경쟁력이 높다.<참고1> 참조 대구는 특색있는 음식들을 가성비 높게 즐길 수 있고,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 쇼핑 채널이 다양하다. 대구지역의 평균 외식비와 외식 물가지수(2024년 기준)는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는데, 외식비는 17개 시도 중 12번째, 외식 물가지수는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나타나 가성비 높은 외식이 가능하다. 특히 '대구10미'로 대표되는 음식과 먹자골목¹⁴⁾, 치맥페스티벌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미식 이벤트가 활성화되어 있다. 쇼핑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2024년 상반기 대구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3조원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¹⁵⁾로 높게 나타났다. 명품 소비 채널인 백화점과 함께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까지,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쇼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6] 2024년 전국 시도별 평균 외식비 수준



주: 2024년 1~10월 중 외식대표 품목 9개의 외식비 평균
자료: 행정안전부

[그림 7] 2024년 전국 시도별 외식 물가지수



주: 2024년 1~10월 기간동안의 평균
자료: 통계청

13) 기후 지표의 경우 OECD 통계의 부재로 Global Residence Index 중 Climate 지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는데, OECD가 우리나라 기준인 것과 달리 해당 통계는 서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4) 대구10미로는 따로국밥, 막창구이, 몽티기, 동인동찜갈비, 논메기매운탕, 북어불고기, 누른 국수, 무침회, 야끼우동, 납작만두가 있으며, 먹자골목으로는 동인동 찜갈비골목, 교동 먹자골목, 북성로 연탄불고기골목, 염매시장 떡전골목, 남문시장 돼지보쌈골목, 안지랑 곱창골목, 반고개 무침회골목, 칠성시장 돼지고기골목 등이 있다.
15) 17개 시도중 서울 12.9조원, 경기 9.6조원, 부산 3.4조원 다음으로 대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2022년 17개 시도별 전통시장 현황

	전체	대형시장	중대형시장	중형시장	소형시장
서울	189	10	8	59	112
부산	160	3	6	52	99
대구	107	2	2	28	75
인천	44	1	2	25	16
광주	23	0	1	9	13
대전	28	0	0	8	20
울산	42	0	0	11	31
세종	4	0	0	1	3
경기	150	1	2	73	74
강원	61	0	0	24	37
충북	55	0	0	15	40
충남	57	0	1	20	36
전북	57	0	0	12	45
전남	95	0	0	21	74
경북	138	0	4	30	104
경남	155	0	2	50	103
제주	23	0	2	7	14

주: 대형시장, 중대형, 중형, 소형시장은 각각 시장내 점포수가 1,000개, 500~999개, 100~499개, 100개 미만인 시장
 자료: 통계청

3.8. 특화산업 외에도 대구지역은 전통문화유산이 풍부하며, 사유원, 비슬산, 화원 등 특색있는 자연관광자원이 있다. 대구지역은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전통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구간송미술관, 계산성당, 근대골목 등의 문화관광 자원이 있다. 사유원과 같이 특색있는 자연관광자원이 존재하고, 비슬산과 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삼성라이온즈 파크, 테마파크(이월드) 및 전망대(83타워), 국제 오페라 축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국제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여가문화자원이 있다.

[표 6] 2023년 17개 시도별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보	166	7	4	1	2	1	2	0	13	13	13	31	10	22	56	17	0
보물	760	57	89	28	17	11	10	3	200	87	98	134	108	208	378	190	7
사적	69	6	11	20	2	1	5	0	69	22	19	51	44	46	102	55	7
명승	3	2	0	1	1	0	1	0	6	26	10	3	11	28	18	15	9
천연기념물	12	7	2	14	2	2	3	2	22	45	23	18	34	61	73	46	49
국가무형유산	32	5	0	5	1	0	0	0	10	3	4	4	9	14	11	15	5
국가민속문화유산	42	2	6	0	3	2	2	1	24	11	21	24	14	38	98	13	9
국가등록문화유산	235	22	14	9	22	23	7	2	95	54	32	77	91	116	66	68	26
합계	1,319	108	126	78	50	40	30	8	439	261	220	342	321	533	802	419	112

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가지정유산
 자료: 국가유산청

3.9. 저렴한 주거비와 풍부한 의료·교통 인프라도 대구의 경쟁력 요인이다. 2024년 기준 오피스텔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은 비교 도시 9개중 4번째로 저렴한¹⁶⁾ 편이다. 의료 인프라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구천명당 의사수 통계(2022년 기준)에서 대구(3.73명)는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철, 버스,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다. 아울러 고속철도(KTX), 고속도로, 공항 등 전국 교통망의 거점이기도 하다.

3.10. 한편 대구지역은 생활속 영어소통환경, 국제교통 환경 등이 열악하고 디지털 노마드에게 필수적인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인프라도 부족하다. 대구지역이 가진 우호적인 여건들은 디지털 노마드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구의 부족한 영어소통환경은 디지털 노마드가 생활하는데 있어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구는 국제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대구공항의 경우 국제선이 운행되지만,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운행되어 국제 노선이 제한적이며, 2024년 1~9월 중 국제선 이용 여객수는 103만명으로 청주공항(111만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같이 디지털 노마드에게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도 부족하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전국 공유오피스 시설 데이터(2023.6월)'를 살펴보면, 전국의 공유오피스 현황과 프린터기, 팩스, 라운지, 24시간 운영여부 등의 제공 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구의 공유오피스는 8개로 타지역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¹⁷⁾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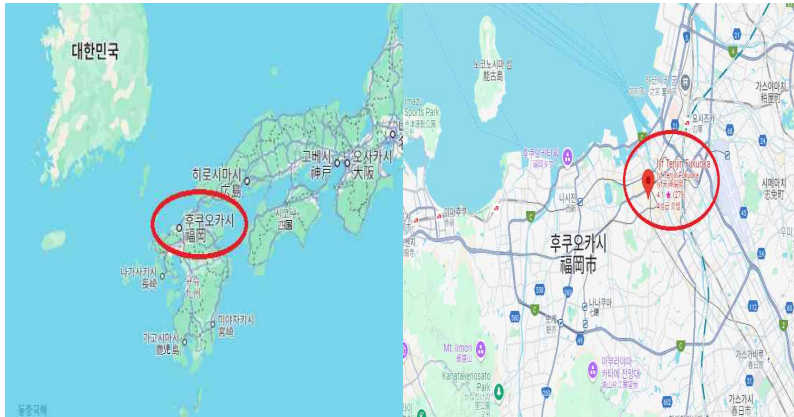
16)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전월세 가격 통계에 따르면 전세가격(m²당 가격)은 비교도시 9개(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광주) 중 대전, 광주, 울산 다음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월세가격(평균 월세보증금)은 세종, 광주, 울산 다음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7) 서울 513개, 경기 231개, 인천 64개, 부산 35개, 대전 22개, 경남 14개, 대구 8개, 충남 7개, 충북 4개, 광주 3개, 경북·전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사례 분석 : 일본 후쿠오카 디지털 노마드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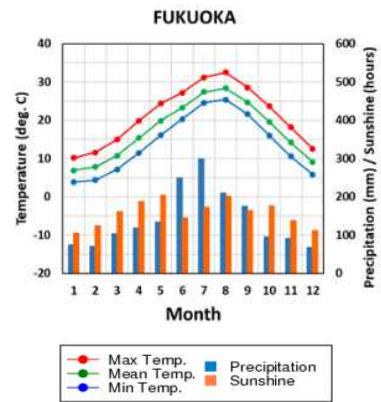
3.11. (시범사업 추진 배경) 일본정부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법령¹⁸⁾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7월 ‘새로운 여행 스타일’로서 위케이션을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지원 및 코로나19라는 대외환경의 변화는 위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확산시켰다. 위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직장이나 자택이 아닌 장소에서 일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근무형태이다. 후쿠오카는 2021년부터 위케이션 사업을 시작하였다. 일본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업문화와 일본인의 인식 등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케이션 사업의 성과는 저조하였다. 이에 후쿠오카시는 일본 지자체 최초로 2023년 10월 한달간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 시범사업(‘COLIVE FUKUOKA’)을 추진하였다.

[그림 8] 후쿠오카 위치



자료: 구글맵, 일본 기상청

[그림 9] 후쿠오카내 공유숙박시설 위치 [그림 10] 후쿠오카 기후조건



3.12. (시범사업 개요 및 전략) 후쿠오카 텐진에 위치한 공유 숙박시설 ‘Lyftenjin Fukuoka’를 거점으로 후쿠오카·규슈의 관광 프로그램과 코워킹 스페이스에서의 비즈니스 교류,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 60개 이상의 콘텐츠를 진행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변이나 도심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의 코워킹 체험, 오픈탑버스 나이트 투어, 사케 양조장 견학, 지역 자원봉사자와의 꽃 심기 체험 등이 있다. 24개국에서 총 49명이 참가하였고, 평균 체류일수는 21일이었다. 참가자의 51%는 프로그램 계획대로 1개월 이상 체류하였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88%, 친구 및 지인 추천 여부는 98%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끈 주된 전략은 지자체와 전문 민간사업체의 협력, 코워킹 스페이스 확보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오카시는 일본 최초의

18)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 낮은 노동생산성을 노동시장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개선하고자 2018년 7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일하는 방식 개혁법은 유연근무를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Telework 확산을 위한 환경 정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 시장 전문 마케팅 회사인 유교(Yugyo)와 협업하여 단순한 목적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 노마드간, 디지털 노마드와 지역주민간 교류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간 교류 콘텐츠 풍부, 지역 아동 및 주민과의 교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11] Colive Fukuoka 2023 스냅샷



자료: COLIVE FUKUOKA 2023

3.13. (시범사업 효과 및 시사점) 참가자들의 총 소비는 약 2.2천만엔, 사업 전체 소비 효과액은 약 3.3천만엔¹⁹⁾으로 추산된다. 후쿠오카시는 2024년에도 디지털 노마드 유치 사업을 실시²⁰⁾할 예정이고, 후쿠오카시 뿐만 아니라 규슈 각 지자체에서도 디지털 노마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실제로 2024년 3월 31일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제도를 정식으로 개시하였다. 후쿠오카 사례는 대구도 충분히 디지털 노마드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쿠오카시는 규슈 지방의 중심도시로, 대경권 소비거점도시인 대구와 유사하다. 두 도시 모두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해당 권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시와 자연의 조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콤팩트한 도시환경, 음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여건은 대구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와 유사하다. 다만 참가자들이 생활 속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대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간, 참가자와 지역주민 간 교류 활동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9)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How Japan is attracting digital nomads to shape local economies and innovation’ (World Economic Forum, 2023.3.28)에 따르면 일본에 체류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월평균 수입은 780,000엔(약 5,200달러)을 초과하는데, 이는 일본 시민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Colive Fukuoka 2024는 2024.10.1.~10.31일간 개최되었으며, 200명 이상의 디지털 노마드가 참여하였다.

IV.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4.1. 디지털 노마드 1인 유치에 따른 대구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부가가치유발효과 2.7백만원, 생산유발효과 5.5백만원, 취업유발효과 0.06명²¹⁾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2023년 기준 대구지역의 주민 1인당 지역내 소비액이 2.3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 1인의 지역 소비액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관광객수는 1.63명인데 반해 디지털 노마드수는 0.54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디지털 노마드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원, 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지역주민 1인 소비대체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노마드 수 ¹⁾
디지털 노마드 1인	2,662,650	5,460,069	0.06	0.54(1.63)

주: 1) ()내는 대구 지역주민 1인의 소비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
 2) 디지털 노마드 체류기간은 일본 사례와 같이 21일로 가정
 3) 대구지역 주민의 1인당 소비액은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대구거주자의 대구지역내 소비액(5,428,675,440,476원)을 2023년 기준 대구지역 주민등록인구수(2,374,960명)로 나누어 산출
 자료: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하나, 신한, 농협 3사 신용카드 데이터, 주민등록인구 현황

디지털 노마드 유치 파급효과 분석에는 ① 대구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1일 소비금액, ② 소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③ 일본 후쿠오카 시범사업에 참가한 디지털 노마드의 평균 체류기간(21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역내 외국인 관광소비지출액은 2023년²²⁾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일 소비금액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1인당 1일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이유는 디지털 노마드와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체류기간을 고려한 분석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외래관광객 조사(표본조사)에서는 지역별 체류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업종별 소비금액과 지역별 체류기간을 이용하여 대구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일 소비금액을 계산하고,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기준 419명)를 나누어 대구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일 소비금액을 추산하였다.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소비금액의 업종별 구분은 지역산업연관표 통합 대분류를 기준(2015년)으로 재분류하였다.

21) 일본사례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산출한 파급효과로, 디지털 노마드 체류기간을 21일로 가정하였다. ‘Digital Nomads: Toward a Future Research Agenda’ (Nick Dreher & Anna Triandafyllidou, 2023.4월)에서는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일부 노마드는 몇 주마다, 다른 이들은 몇 달마다 이동하고, “미니 은퇴”를 언급하며 한곳에 1~6개월 머무른 후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지역내 디지털 노마드의 체류기간도 짧게는 몇주, 길게는 6개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체류기간이 분기일 경우 일본사례를 가정하여 산출한 효과보다 약 4.3배, 반년일 경우 약 8.6배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22) 외래관광객 조사는 2023년이 가용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이기 때문에 2023년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표 8] 대구방문 외국인관광객의 1일 소비금액

업종별 소비	소비지출액	1인당 소비지출액(N=419)	지역산업연관표 업종
여행사 비용	15,465,746	36,911	사업지원서비스
숙박비	19,172,961	45,75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음식점	13,507,489	32,237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식음료	2,451,358	5,85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교통비	5,675,301	13,545	운송서비스
렌트카	822,485	1,963	운송서비스
유류비	331,197	79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문화서비스	603,003	1,4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오락 및 운동서비스	693,230	1,6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쇼핑비	21,605,199	51,564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데이터통신비	616,289	1,471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치료 및 건강검진비	982,568	2,34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미용 서비스	623,243	1,487	기타 서비스
기타	1,226,139	2,926	기타
합계	83,776,207	199,943	-

주: 1) 전체 체류기간 대비 대구지역 체류기간 비중을 이용하여 총 소비금액 중 대구지역 내 소비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표본의 대구지역 체류기간을 나누어 1일 소비금액을 산산
 2) 2023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로 환산
 3) 지역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 기준
 자료: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일 소비금액을 바탕으로 추정된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126,793원, 260,003원이고, 외국인관광객 1인 소비금액²³⁾의 취업유발효과효과는 0.02명이다. 일본 후쿠오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디지털 노마드의 평균 체류기간인 21일을 적용하면 앞서 제시한 디지털 노마드 1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도출된다.
 (부가가치, 생산, 취업 유발계수는 <참고3> 참조)

[표 9] 외국인관광객 1인당 1일 소비지출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소비지출액(N=419)	부가가치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사업지원서비스	36,911	29,227	43,950	0.001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77,996	37,964	108,231	0.0078
운송서비스	15,508	9,097	18,811	0.0017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59,676	44,000	74,573	0.006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3,094	2,239	3,836	0.000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345	1,470	2,818	0.0001
기타 서비스	1,487	829	1,960	0.0001
기타	2,926	1,966	5,823	0.0002
합계	199,943	126,793	260,003	0.0187

주: 부가가치, 생산, 취업 유발효과는 최종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구지역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효과의 크기
 자료: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23) 취업유발효과는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1인의 평균 체류기간인 7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일 소비지출액이 아닌 1인당 7일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4.2. 디지털 노마드 유치는 대구의 청년유출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지원 강화 등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늘 수 있으며 국내 디지털 노마드 유입도 촉진할 것이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보면, 김화연 등(2022)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경제활동 및 일자리 인프라 여건이 출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청년집단의 정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자체 지원은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청년층의 지방 정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희 등(2024)에서는 청년이 지역에 창업을 결정하는 이유로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중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청년 로컬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에서도 디지털 노마드 유치는 청년유출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지훈(2020)은 일본 지바현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의 젊은 디지털 노마드가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원인에 대해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젊은 디지털 노마드들은 커뮤니티, 교육, 생활에 필요한 일정소득이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층 중심의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를 상대하기에는 지역의 젊은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디지털 노마드 유치가 청년유출 문제 완화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사례

연구 제목 및 저자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김화연 등, 2022.6월)	1. 출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청년집단 -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경제활동 및 일자리 인프라, 보건·복지 여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2. 출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청년집단 - 생활환경 중 자연환경 인프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청년로컬창업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 (조재희 등, 2024.3월)	1.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에 대한 청년 역할 인식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동기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4. 지속적인 사업전략: 지역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심층 인터뷰 등
The Impact of Remote Work on Local Employment, Business Relocation, and Local Home Costs (Michael Dalton et al., 2023.3월)	1. 재택근무가 적합한 직업군의 원격근무 수용률을 증가, 그렇지 못한 직업군에서는 미미한 영향 2. 고용 밀도가 높은 인구 조사 지역은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 외곽 지역은 유동인구 소폭 증가 3. 유동인구 10% 감소시,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고용은 2.8%, 소매업 고용은 2% 감소 4. 유동 인구 감소시 지역 임대료 및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	회귀분석
디지털노마드 어디로, 왜 이동하는가? (김지훈, 2020.12월)	1. 커뮤니티, 교육,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 2. 기술력이 부족하고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 집단 - 커뮤니티와 학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심층 인터뷰 등

V. 디지털 노마드 유치 전략 및 시사점

1. 디지털 노마드 유치 전략

- 5.1. **정부지원 등을 통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비자 형태의 특화비자를 디지털 노마드에 적용한다면 디지털 노마드 유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디지털 노마드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비자와 같이 지자체 차원의 비자정책을 고려한다면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비자 발급 요건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도시마다 다를 것인데, 지자체가 필요에 맞게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요건을 특화 설계하고, 비자 발급대상자를 중앙정부에 추천한다면 디지털 노마드의 지역 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다.
- 5.2. **전문사업체와의 협업,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의 확보 및 커뮤니티 중심의 콘텐츠 개발이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촉진할 것이다.** 후쿠오카시는 일본 최초의 디지털 노마드 시장 전문 마케팅 회사인 유교(Yugyo)와 협업하여 디지털 노마드간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 노마드간, 디지털 노마드와 지역주민간의 교류 활동을 기획하였다. 유교(Yugyo)는 교류 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코리빙 스페이스(공유 숙박시설)를 확보하여 커뮤니티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는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동 편의성으로 도시 인프라 향유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구는 도심인 수성구에 수성알파시티(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동 지역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를 확보한다면 디지털 노마드 유치는 물론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의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 참여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구10미 투어, 치맥페스티벌, 근대골목투어, 지역 자원봉사 등 디지털 노마드와 지역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도 기획해야 할 것이다.
- 5.3. **대구시는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 홈페이지 제작, SNS계정을 이용한 홍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노마드가 많이 이용하는 국제적인 플랫폼²⁴⁾과 제휴하여 대구의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대구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홈페이지 제작이나 SNS계정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방법은 국제적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보다 홍보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해외사례에서는 모두

24) NomadList와 FeakingNomads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²⁵⁾하였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다. 외교부의 '2023년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세계 한류 팬의 수는 2억명을 돌파하였고, 미주 지역에서 한류 팬이 가장 크게 증가(전년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노마드 다수가 미국 국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K-pop, K-drama 등 한류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5.4. 외국인이 정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속 영어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뿐만 아니라 향후 공항 신설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생활속 영어소통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 AI 기술 발달로 의사소통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자연스러운 생활환경이 되도록 지자체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장기적으로 지역도시에 정주하는 생활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마련해 지역도시에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업무 뿐만 아니라 여가 및 관광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시사점

5.5. 대구는 일본 후쿠오카와 같이 경제권역 내 소비거점도시이며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고령화 대응, 국제공항 수요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와 국외 사례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²⁶⁾은 미주, 유럽 등 국제노선이 추가되어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구는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임용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를 통한 교류 증대는 다양한 문화와 개방적인 사고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도시이미지를 탈피하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디지털 노마드 유치는 단기적으로 대구지역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구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추진이 성공하여 디지털 노마드의 장기체류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라는 과도기를 넘어 생활주민 확충을 통해 지역소멸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5) 포르투갈 디지털노마드 홈페이지(<https://digitalnomads.startupmadeira.eu/>), 브라질 디지털 노마드 홈페이지(<https://digitalnomadsbrazil.com/>), 일본 디지털 노마드 홈페이지(<https://www.colivefukuoka.com/>)

26) 대구경북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중이며, 대구공항의 한정된 국제노선에 비해 미주, 유럽 등의 국제노선이 추가로 운항될 예정으로 신공항 완공시 대구의 국제교통 접근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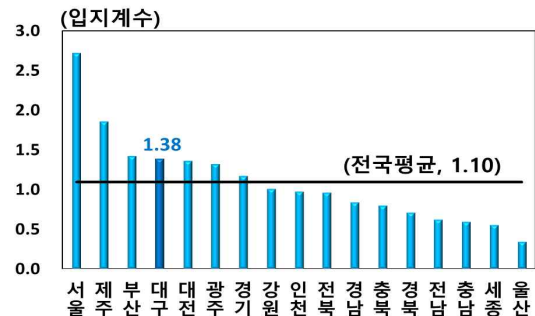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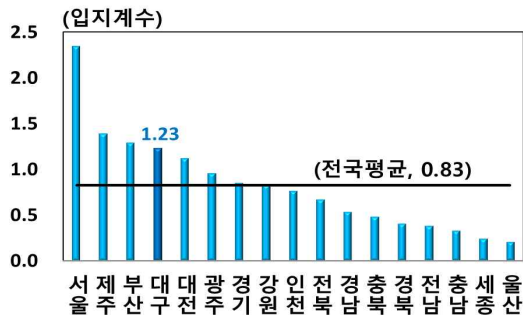
5.6. 본고는 자료의 제약상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디지털 노마드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디지털 노마드 관련 통계가 확충된다면 디지털 노마드가 머문 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무임승차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²⁷⁾과 디지털 노마드 유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부정적인 효과까지 고려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언과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27) 우리나라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프리랜서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는 소속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머문 도시의 각종 인프라에 무임승차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1> 입지계수²⁸⁾ 기준 대구지역 특화산업

	전국		대구		입지계수 (B/A)
	총산출액	비중(A)	총산출액	비중(B)	
농림수산물	61,371,723	1.6	464,189	0.4	0.27
광산품	4,125,218	0.1	2,924	0.0	0.03
음식료품	122,147,220	3.2	2,615,506	2.4	0.76
섬유 및 가죽제품	79,329,137	2.1	4,703,781	4.4	2.10
목재 및 종이, 인쇄	42,914,016	1.1	1,713,622	1.6	1.42
석탄 및 석유제품	110,150,033	2.9	12,503	0.0	0.00
화학제품	245,383,162	6.4	3,219,086	3.0	0.47
비금속광물제품	39,678,688	1.0	566,944	0.5	0.51
1차 금속제품	124,914,202	3.3	1,434,220	1.3	0.41
금속가공제품	100,287,562	2.6	6,020,840	5.6	2.13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82,213,561	7.4	2,646,488	2.4	0.33
전기장비	95,673,140	2.5	2,660,420	2.5	0.99
기계 및 장비	125,009,907	3.3	5,318,396	4.9	1.51
운송장비	257,977,501	6.7	5,421,744	5.0	0.75
기타 제조업 제품	20,146,498	0.5	468,911	0.4	0.83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61,203,821	1.6	2,274,353	2.1	1.32
전력, 가스 및 증기	92,800,040	2.4	1,374,928	1.3	0.53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9,221,573	0.5	761,200	0.7	1.40
건설	223,616,951	5.8	8,184,525	7.6	1.3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47,647,642	6.5	8,569,801	7.9	1.23
운송서비스	141,344,511	3.7	2,842,161	2.6	0.7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31,926,155	3.4	4,909,063	4.5	1.3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35,412,832	3.5	2,239,724	2.1	0.59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56,925,173	4.1	5,861,484	5.4	1.32
부동산서비스	191,497,517	5.0	7,508,566	6.9	1.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86,524,180	4.9	3,877,690	3.6	0.74
사업지원서비스	76,481,272	2.0	2,564,153	2.4	1.1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23,378,849	3.2	4,376,467	4.0	1.26
교육서비스	116,328,647	3.0	5,120,451	4.7	1.5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19,620,062	3.1	6,390,423	5.9	1.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40,293,777	1.1	950,759	0.9	0.84
기타 서비스	54,193,336	1.4	2,898,249	2.7	1.90
기타	3,824,174	0.1	119,012	0.1	1.10
제조업	1,707,028,448	44.5	39,076,814	36.2	0.81
서비스업	1,721,573,953	44.9	58,108,991	53.8	1.20
전산업	3,833,562,080	100.0	108,092,583	100.0	

[그림 12] 시도별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업 입지계수 [그림 13] 시도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입지계수



자료: 한국은행

28)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의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대적인 비율로써 입지계수가 1보다 클 경우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다.

<참고 2> 세계 각국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요건

	최소 소득요건	비자 수수료	세금면제	영주권	거주 요건	보험 요건	범죄기록 조회
Albania	-	O	O	O	O	O	O
Anguilla	X	O	O	X	O	O	O
Antigua and Barbuda	O	O	O	X	X	O	O
Argentina	X	O	X	X	O	O	O
Aruba	-	O	X	X	-	-	-
Bahamas	X	O	X	X	-	O	-
Barbados	O	O	O	X	-	O	O
Belize	O	O	O	X	O	O	O
Bermuda	-	O	O	X	-	O	O
Brazil	O	O	O	X	-	O	O
Cabo Verde	O	O	O	X	O	O	O
Canada	-	O	X	X	O	-	O
Cayman Islands	O	O	X	X	-	O	O
Colombia	O	O	O	X	-	O	O
Costa Rica	O	O	O	X	-	O	O
Croatia	O	O	O	X	O	O	O
Curacao	X	O	O	X	X	O	O
Cyprus	O	O	O	X	O	O	O
Czechia	O	O	X	X	O	O	O
Denmark	O	O	O	X	-	O	-
Dominica	O	O	O	-	-	O	O
Ecuador	O	O	O	X	-	O	O
Estonia	O	O	O	X	-	O	O
Georgia	O	X	O	O	O	O	O
Germany	O	O	O	O	O	O	-
Greece	O	O	O	-	-	O	O
Grenada	O	O	O	-	-	O	O
Hungary	O	O	O	-	O	O	O
Iceland	O	O	O	-	X	O	O
Indonesia	O	O	-	-	-	-	-
Latvia	O	O	O	O	-	O	-
Malaysia	O	O	O	-	-	O	O
Malta	O	O	O	O	O	O	O
Mauritius	O	X	O	-	O	O	O
Mexico	O	O	O	O	-	O	X
Montenegro	O	-	O	-	O	O	O
Montserrat	O	O	O	-	-	O	O
Morocco	X	O	-	-	O	O	X
Namibia	O	O	-	-	O	O	O
Norway	O	O	X	-	O	-	-
Panama	O	O	O	-	-	O	O
Portugal	O	O	O	O	O	O	O
Romania	O	O	O	-	O	O	O
Saint Lucia	X	O	O	-	O	-	O
Serbia	O	O	-	-	O	O	-
Seychelles	O	O	O	-	-	O	-
Spain	O	O	O	O	O	O	O
Sri Lanka	-	O	-	-	-	-	O
Taiwan Province of China	O	O	O	O	-	X	X
Thailand	O	O	O	X	-	O	O
United Arab Emirates	O	O	O	X	-	O	-
Korea	O	O	O	X	-	O	O

주: 1) - 는 N/A를 의미

자료: UNWTO(2023), 대한민국 법무부

<참고 3> 대구지역의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생산 및 취업유발계수

업종	부가가치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737	1.250	23.212
운송서비스	0.587	1.213	22.27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487	1.388	18.39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646	1.293	9.447
금융 및 보험서비스	0.754	1.275	7.562
부동산서비스	0.881	1.181	4.22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700	1.218	10.417
사업지원서비스	0.792	1.191	18.8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868	1.113	11.721
교육서비스	0.786	1.183	15.93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627	1.202	15.2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	0.724	1.240	15.309
기타 서비스	0.557	1.318	23.444
기타	0.672	1.990	10.273

주: 1) 부가가치유발계수 : 국산품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생산유발계수 : 국산품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

취업유발계수 : 국산품 수요가 10억원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

2) 지역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 기준

자료: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참고 4> 일본의 빈집 뱅크 및 활용사례 소개

- 일본의 빈집 뱅크는 디지털 노마드 유입과 국내 청년층의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도로써 빈집 뱅크 제도 및 활용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 빈집 뱅크는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자로부터 물건 정보를 모아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한 후 소유자와 이용희망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청년 및 육아세대의 정착 등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증가가 주된 목적이다.
 - 특히 해당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시험 삼아 살아보기, 보조금 지급, 개·보수 비용 또는 집값 보조, 출산 축하 장려금 지급, 어린이 의료무상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일본의 빈집 뱅크 사업은 외국인 민박시설이나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으로 활용하는 등 디지털 노마드 및 국내 청년창업가 유입에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빈집을 이용하여 지역 인구 및 세수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활용 사례	주요 내용
외국인 민박시설로 활용 (동경 오오타구 빈집 지역공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의 오오타구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빈집 소유주와 빈집 활용 희망자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 - 자치 단체나 관련 자격자가 상담 및 컨설팅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주민 복지를 위한 활동 공간, 놀이터, 영어 회화 커뮤니티 장소 등 다양한 공간 수요를 발굴 - 국가전략 특별구역의 외국인 체류시설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민박특구를 진행,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여관업법 특례를 활용한 사례로, 30여 개의 시설이 인정을 받아 사용중
외진 입지의 빈집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토시마 리노베이션 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을 재활용하기 위한 리노베이션 스쿨을 운영하는데, 유휴부동산을 활용한 실천적 도시재생 방식 - '마을 건설을 위한 단기 집중 스쿨'에서는 소유자가 제공한 빈집 매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워크숍을 진행 - 3일간 진행되는 워크숍 과정에서 리노베이션 전문가인 유닛 마스터(강사)와 전국에서 모인 수강생이 함께 리노베이션의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결과물을 유튜브로 전달, 실제로 카페, 여관 등이 리노베이션되었음

자료 : 서울정책아카이브

참고문헌

- 김성윤 외 2인(2022),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22-15
- 김지훈(2020), “디지털노마드 어디로, 왜 이동하는가? - 일본 지바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28(4), pp. 23-40
- 김화연, 이대웅(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pp. 216-288
- 남지현(2018), “일본에서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서울정책아카이브, 세계와 도시 22호 특집1, pp. 12-25
- 서용건 외 2인(2013), “제주방문 중국관광객의 소비특성과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 세계법제정보센터(2024), “세계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 규정”
- 이용호 외 3인(2023), “문화컨텐츠, 숙박여건, 교통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구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조민경(2023), “대구지역의 지역간, 업종별 소비유출입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조재희, 박상현(2024),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청년로컬창업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20(1), pp. 149-160
- 지정목, 박태진(2019), “한국과 일본의 빈집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64, pp. 239-260
- 차경수, 박민수(2018), “부산방문 관광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부산본부
-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2024), “일본 지자체 최초 해외 디지털 노마드 유치 프로그램 ‘COLIVE FUKUOKA’”
- Coworking Insights(2022), “2022 Hot Dest Price Index”
- Dalton, M., et al.(2023), “The Impact of Remote Work on Local Employment, Business Relocation, and Local Home Cost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Working Paper 553
- Dreher, N., & Triandafyllidou, A.(2023), “Digital Nomads: Toward a Future Research Agenda”, 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 Working Paper No.2023/04
- Education First(2023), “English Proficiency Index”
- Global Intelligence Unit(2024), “Global Digital Nomad Report”
-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2023), “Digital Nomad Visas”
- World Economic Forum(2023), “How japan is attracting digital nomads to shape local economies and innovation”